

# 장애인전용구역 암체 주차 급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대는 '암체 운전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시민의식 부재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수수방관에 가까운 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장애인정책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건수는 5개 자치구 통틀어 4만7876건으로, 부과 과태료는 40억746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1385건에 9억6999만원, 2017년 1만6225건에 12억2402만원, 2018년 2만266건에 17억7344만원으로, 견수와 액수 모두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은 우선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부재를 들 수 있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신고절차 간소화와 각 자치구의 '뒷상행정'이 함께 빚어낸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위반 신고의 대부분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관리·감독주체인 자치구가 직접 단속한 건수는 매우 드물다는 게 정책연대 측 설명이다.

정책연대 관계자는 "각 구청은 노인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불과 몇 곳을 돌고 홍보나 계보를 하는 등 마치 못해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며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주차장 확보 등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구청 '과외수입'으로 잡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마치 '구청장의 쌈짓돈' 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연대 열건이 사무국장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에 편성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충과 관리, 단속, 홍보, 계도에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형섭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배려나 양보로 선심 쓰는 공간이 아니고, 법률로 정해진 법정 공간이고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며 "각 구의회는 관련 과태료를 장애인 주차장 관련 사업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에 대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

## 광주5개구, 3년 새 두배 증가·과태료 9억→17억

### 장애인단체 "특별회계 편성·효율적인 관리 시급"

인·입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 간, 3회 적발 시 1년 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해진다.

최남규 기자



뒤에 걸린 빈달곰 21일 서울 중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2019년 생물다양성의 날 맞아 '울무 없는 지구, 더 나아가 울무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규직 전환 요구'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조 파업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1일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 전남지역지부는 이날 오전 전남대병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단체는 "2년전 공공기관 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전남대병원 측은 논의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파업 출정식을 마친 노조는 세종시로 이동해 파업에 참여한 서울·경북·부산대병원 노조원 등과 연대해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파업에는 본원과 병원 등 4개 병원 비정규직 근로자 540여명 중 미화직을 중심으로 50여명이 참여하며 간호, 보건직 등 정규직 노조원들은 동참하지 않는다.

주춘정 기자

###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42년 만에 무죄

유신체제 이래 문교정책 등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은 70대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유죄

를 선고받은 A(70)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해 9월1일 국가안정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1977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징

행유에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이 규정한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 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춘정 기자

## 광주서 남아차량에 갇혔다 구조

광주에서 남자 아이가 차량에 홀로 갇혔다 구조됐다. 21일 광주 119특수구조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52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모 병원 주차장에서 생후 18개월된 남아가 차량에 갇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 분만에 차량 문을 열고 남아를 구조했다.

남아는 어머니가 차량 열쇠를 내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구조단 관계자는 "아이가 무더위 속 차량에 갇힌 경우에는 탈진 증세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광주서 잇단 안전사고로 노동자 사상

광주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다쳤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2시44분께 광산구 등원동 한 회사 앞 창고 입구에서 A(50)씨가 1t 트럭 적재함과 지게차 전면부 사이에 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트럭 옆에서 홀로 화물을 싣던 중 시동이 걸린 지게차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12시58분께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모 공장에서 B(25)씨가 절곡기에 왼쪽 손이 끼었다.

B씨는 급속관을 끊히는 기계에 포설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형태 기자

## 광주 한 공원에서 40대 개에 물려...전주 입건

광주에서 개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에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A(55)씨가 키우는 진돗개(중형견)가 행인 B(40)씨의 오른쪽 종아리·허벅지 등을 3차례 물었다.

이후 B씨는 전주 A씨와 함께 병원에 동행, 치료를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진돗개에 목줄이 채워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A씨가 산책 중 손에서 목줄을 놓은 것으로 추정했다.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주 제조업체 실험실 폭발 3명 중경상

21일 오후 2시2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근로자 A(37)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다른 근로자 B(37)씨와 C(35)씨도 얼굴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실험실 배합실에서 약품을 정리하던 중 무언가 폭발했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주택가 산책 여성 무차별 폭행 40대 영장

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주택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A(45)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에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수 차례 차고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마주오던 B씨가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종아리 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